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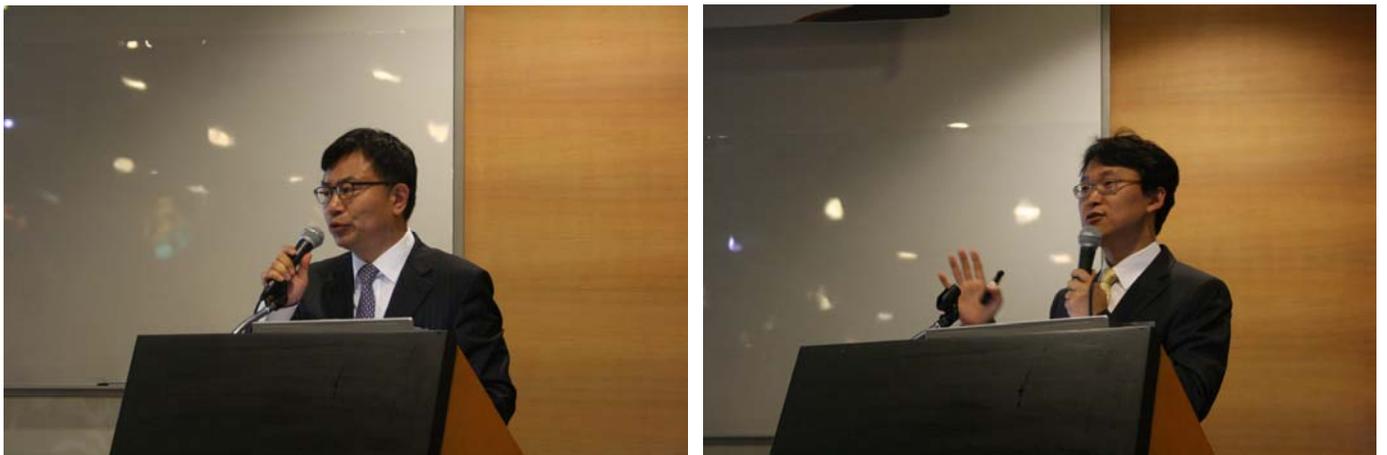
##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7월 3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부에서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 법제 개관'을, 유정훈 변호사가 '미얀마 진출시 유의점과 효율적 방안'을 발표하고, 제2부에서 정재형 변호사가 '태국 투자 법제 개관'에 이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태국의 지역운영본부(ROH) 설립 및 유망 투자 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시장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태국 또한 성장가능성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전략적 역할에 주목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와 태국의 투자 법제와 시장 환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 로펌으로서 유일하게 미얀마와 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평지성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행사 사진]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영태 대표변호사(좌)와 발제를 하고 있는 정철 변호사(우)



세미나 전경